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을 현지지도하시고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류경구강병원의 진단치료실, 구급치료실, 기공실, 보철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의료봉사실태와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루에 환자들이 몇명이나 찾아오는가, 당에서 마련해준 설비들의 상태는 어떤가, 의약품은 제대로 보장되는가를 하나하나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환자와들 가족들,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보시고 무슨 치료를 받으러 왔는가, 어디가 아픈가를 다정히 물어주시고 의사들에게 치료를 잘해주라고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어주신 궁전같은 병원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고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올리는데 로인들의 손을 잡아주신 원수님께서는 건강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원에 사람들이 많은것을 보니 의료봉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류경구강병원을 건설하기를 잘했다고 기뻐하시였다.

병원이 개원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인민들속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 류경구강병원을 일떠세운것은 세계적수준의 구강병원이 있다는것을 소개선전하자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자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원의 물질기

술적토대와 환자치료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치료사업의 정보화실현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와 룰전기재 등을 당에서 마련해주겠다고, 병원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서 모두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옥류아동병원에도 들리시어 병원일군들로부터 관리운영과 의료봉사활동에서 애로되는것이 없는가를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병을 모르고 마음껏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옥류아동병원을 일떠세웠다고 하시면서 병원의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즉석에서 풀어주시는 뜨거운 온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의 보건정책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데서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이 앞장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중주지와 함께 3월 22일 4.25문화회관에서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공연무대에는 녀성중창 《인민의 환희》, 녀성독창과 방창 《뜨거운 정》, 녀성2중창과 방창 《우리 아버지》,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 녀성3중창 《귀환의 노래》, 녀성독창과 방창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 녀성독창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녀성2중창과 방창 《우리 원수님》, 경음악 《병사의 발자욱》, 녀

성독창과 방창 《용사들》, 녀성중창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녀성4중창 《그이 없는 못살아》, 녀성중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종목들이 울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고난도 시련도 두렵지 않으며 그이의 힘찬 발걸음만 따르면 험산준령도 웃으며 헤쳐 넘을수 있고 그 어떤 강적도 단숨에 짓밟아버릴수 있다는 필승의 신심과 략관으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태양절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태양절경축 민주광고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9일 킨사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민주광고 공산당,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민주광고-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를 비롯한 정당, 단체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광고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인 민주광고-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 오메때 가스통 음보요가 선출되였다.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가장 뜻깊게 경축하는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가장 숭고한 의무로 간주하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인민의 자유와 행복, 온세대의 자주화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주석의 고귀한 혁명생애는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우리는 태양절에 즈음

하여 민주광고인민에게 김일성주석의 위대성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보다 활발히 벌릴것이다.

준비위원회는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집회, 토론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경축 네팔전국준비위원회가 15일에 결성되였다.

전국준비위원회는 네팔의 여러 정당, 친선 및 사회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 출판보도부문 인사들로 구성되였다.

전국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씨.피.마이날리가 선출되였다.

전국준비위원회는 결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4월 15일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력사적의

를 가지는 날이다.

우리모두는 이날을 뜻깊게 경축할것이다.

조선인민은 태양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맞이하고있으며 진보적인류는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상징하는 위대한 날로 간주하고있다.

우리는 이날을 가장 뜻깊게 경축하기 위하여 태양절경축 네팔전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장구한 기간 자주의 기치높이 조선혁명을 령도하시어 커다란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하시고 인류해방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신것으로 하여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시는 세계정치사에서 가장 위대한 수령이시다.

그이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철학적인리에 기초한 혁명의 지도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태양절경축 인도네시아

양성당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8일 당청사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인도네시아당 양성당 전국지도리사와 총위원장 누르딘 부르노모와 총서기 하리더 싱을 비롯한 지도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총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우리는 해마다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경축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여 왔다.

김일성주석은 한생을 조선인민의 행복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주석의 자애로운 영상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장으로 총위원장과 총서기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성스

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경축 로씨야사회계준비위원회가 13일 모스크바에서 결성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로씨야협회 위원장 예.아.베드로브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에는 로씨야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청송하여 경축집회, 일적토론회,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불가리아, 에스빠냐, 수리아, 기르기즈스탄, 따지끼스탄, 말레이시아, 프랑스, 타이, 로모니아, 스웨리에, 방글라데슈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도 태양절경축 준비위원회들이 조직되어 태양절에 즈음하여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북녘동포들 가슴깊이 젖어든 김정은령도자의 사랑

재미동포언론인의 글

재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이 대표 로길남의 글 《북녘동포들 가슴깊이 젖어든 김정은령도자의 사랑》을 실었다.

글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제1위원장에서 배푸시는 사랑의 이야기가 감동 그자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소년단창립 66주 경축행사대 나라앞에 쫓겨 가는 사람의 자식이지만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에서 모범적인 학생을 차별없이 대표로 참가시키도록 해주신 이야기를 비롯하여 김정은제1위원장의 인민사랑, 광복정치에 대한 전심전열은 일화들은 참으로 많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은령도자의 사랑은 북녘동포들의 가슴깊이 젖어들어 감동과 충격을 일으키고있다고 밝혔다.

하기에 자기 령도자에 대한 한없는 경도의 정이 북녘동포모두의 심장속에 자리잡고있다고 하면서 글은 다음

과 같이 계속하였다.

세상에 자기 령도자를 그로록 떠받드는 나라는 오로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다.

김정은제1위원장을 총직하게 받들어 모시려는 활활산처럼 뜨거운 마음들을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서 느낄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펼치고있는 중상과 모략소동이 얼마나 거짓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조선은 자주권을 존중하며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강조한다.

모두가 주인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며 사는 이런 사회를 향해 《인민부재》니 뭐니 하고 말한다면 그처럼 무식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북녘사회는 인류가 지향해온 리상형의 사회이다.

그렇다. 북은 아직도 부족한것이 없지 않으나 정치, 군사, 첨단과학, 음악예술, 교육, 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불 대 한마디로 건강하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군민이 일치단결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있다.

령도자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이민주의의 정치를 펴시고 군민은 령도자를 높이 받들어모신다.

지금 북녘사회에서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불타는 소원》 등의 노래소리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울려퍼지고있다.

이 노래들은 북녘군민들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령도자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을 반영하고있는것이다.

선군정치가 펼쳐지는 조선에서는 사회 모든 분야의 토대가 탄탄하고 전방이 확고하다. 그래서 조선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제29차 도(직할시)과학기술축전 진행

제29차 각 도(직할시)과학기술축전들이 2월 25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되였다.

축전들에는 시(구역), 군과학기술축전들에서 당선된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축전들에 농업과

건설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수천건의 론문들, 제품들을 출품하였다.

축전들에서는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새 기술교류, 첨단기술감의 등이 진행되였다.

많은 연구론문들과 각종 전시품들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

으로 끌어올리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모든 제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한 피라는 탐구의 나날에 이룩한 가치있는 성과들이것으로 하여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축전들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과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본사기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불길높이 생산을 적극 높이고있다.

— 홍주닭공장에서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대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박근혜가 네테를란드에서 진행된 제3차 《핵안전수뇌자회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핵문제를 터무니없이 절고들며 도발적인 망발을 제친것과 관련하여 2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박근혜는 네테를란드에서 진행된 제3차 《핵안전수뇌자회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핵문제를 일도당토 않게 절고들며 심히 못된 망발을 지껄였다.

그는 《핵무기없는 세상》은 《북핵도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는가 하면 《북에 핵을 포기하라는 메세지를 좀더 확고하게 보낼 필요가 있다.》는 꾀변도 늘어놓았다.

지어는 《평화에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있는 조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체르노빌핵발전소보다 더 큰 핵재앙으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북의 핵은 데로에 사용될수 있고 주변국 핵무장경쟁을 야기시킬수 있다.》는, 《심각한 우리의 대안이므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특히 그는 이사람저사람을 만나서는 우리의 병진로선까지 절고들면서 《불가능하다.》느니 뭐니 하고 시비질하였다.

박근혜가 지금까지 우리 핵문제와 병진로선에 대해 무덤하게 망발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 《위협성》을 증명해보려고 우리의 평화적핵시설까지 어처구니없이 절고들면서 체르노빌보다 더 큰 핵재앙을 초래할수 있다고 꾀변대 해서는 만사람이 쓴웃음을 금치 못하고있다.

아무리 미국의 노복이고 하수인이라고 하여도 무엇을 지절대겠으면 엄연한 사실자료나 초보적인 상식이 라도 똑바로 알고 입을 놀려야 할것이다.

박근혜가 《핵안전수뇌자회의》에 참가하여 바른대로 한마디 하려면 마땅히 핵무기를 제일먼저 만들고 그것을 확산시켰으며 인류에게 실제적으로 핵확화를 들춰주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핵위협을 끊임없이 가하고있는 미국부터 규탄했어야 할것이다.

제땅에 미국핵무기를 가득 끌어들이고 지금현재도 미국과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는 당사자가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민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핵억제력을 절고들다 못해 평화적핵시설까지 터무니없이 시비한것이야말로 삼척동자도 양천대소할 세계적인 통증조소거리가 아닐수 없다.

핵시설의 불안정성에 대해 말한다 해도 한해에 몇번씩 고장나 멈춰서고 핵오염물질류출사고까지 일어나야단치는 남조선의 핵발전소와 일본

과 미국에서 잇은 특대형 핵발전소 참사부터 먼저 꼽아야 할것이다.

부연하건대 우리의 주체적기술과 힘에 의해 건설된 냉병원자력발전소는 가동을 시작한 이래 수십년이 지나도록 사소한 사고도 없이 오늘날 기준자제 잘 돌아가고있으며 주 변의 환경오염은커녕 물과 공기, 경치가 하루도 좋아 우리 나라의 명승지로 이름을 떨치고있다.

얼마나 우리의 핵문제를 시비하고 싶었으면 우리의 냉병핵시설을 체르노빌핵발전소에 생동같이 대비시켜 남조선언론들까지 과학적근거도 없이 북핵의 위험성을 과장하였다고 비난, 조소하겠는가.

미국의 핵전쟁하수인인 박근혜가 상건의 흉내를 내어 《핵이 없는 세상》을 떠든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그것을 《북핵폐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한것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도 판별할줄 모르는 무지와 무식의 표현이 아니면 미국과 한속통의 추악한 정체를 드러내는것으로 될뿐이다.

박근혜는 이번에도 우리의 핵을 터무니없이 절고들고 병진로선까지 시비질함으로써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북남고위급접촉합의를 그자신이 탄복하게 위반하였다.

그러고도 그 무슨 《신뢰》니, 《진정성》이니 하고 말할 체면이 있는가 하는것이다.

북남합의는 아무때나 뒤집는 남조선위정자들의 《선거공약》도 아니고 리해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시정해들의 상투적인 빈 약속도 아니다.

박근혜가 진실로 북남관계개선을 원한다면 아무 말이나 제멋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분별과 리성을 찾고 언사를 삼가하는 버릇부터 붙여야 한다.

실사 누가 무식한 글을 읽으라고 써 주었다 해도 이제는 청와대의 안방에 까지 들어앉았는데 방구석에서 횡설수설하던 아나네의 고성을 버리고 세상사람들앞에서 할 말 못할 말 정도는 가려야 그나마 초보적인 자질이라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을것이다.

박근혜는 큰 실수를 범하였다. 핵문제와 관련하여 명백히 말해줄것은 전조선전도비핵화는 있을수 있어도 일방적인 《북비핵화》란 절대로 있을수 없으며 그에 대해 애당초 꿈도 꾸지 말라는것이다.

《핵이 없는 세상》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 시작점이 어디부터 되어야 하였는가에 대해 다시 되새겨 보고 핵무기의 조성과도 핵위협의 원흉인 상전에 대해 할 말을 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그래야 핵문제의 옳바른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될것이다.

우리는 박근혜의 촌스러운 행보를 계속 지켜볼것이다.

본사기자